

平和와 協力の 觀點에서 본 多者主義의 理論的 多樣性 研究*

- 事例分析을 통한 類型的 概念化를 中心으로 -

金慶一**

本研究では、多国間主義の国外の研究動向に注目しながら、多国間主義が追求する究極の目標である、協力と平和という観点から多国間主義を新たに眺め、多国間主義に内包された多様性を、より体系的に分析し、概念上、類型別、再定義するためにその目的がある。多国間主義は、政治体制や理念、国家的利害関係が異なる3カ国以上の国々が参加して、お互いの国の政策を相互に調整し、いくつかの原則と規範の形成に基づいて、国際秩序を追求しようとする制度の一種であり、関連価値の不可分性、行為の一般原則、包括的互惠性と呼ばれる構成要素を内包している。脱冷戦に伴う変化とともに、多国間主義をもとに、国家間の協力を追求するための方案が多様に推進されてきた。それを内容的な側面から見ると、事案によってかなりの差を見せていることは事実である。これは、様々な多国間主義的協力策の展開の過程で示されている相異性を通してよく知ることができる。したがって本稿では、多国間協力の基本的な目的となる、相互の利益と平和共存のための具体的な検討と、多国間主義の概念の多様性を具体的に明らかにしている。

キーワード：多者主義、平和、協力、東亞細亞、日本
(다자주의, 평화, 협력, 동아시아, 일본)

1. 序論

국제관계의 구조와 체제 자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레짐이론(Regime Theory)의 대안으로 등장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B00049)

**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그동안 이론과 실제 측면에서 러기(John G. Ruggie), 코헤인(Robert O. Keohane), 카포라소(James A. Caporaso) 등의 학자들에 의해 관련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충분하게 정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다자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탈냉전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가들 간의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방면에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방안들의 내용적 측면들을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다양한 다자주의적 방안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이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비교적 순조로운 과정을 거쳐서 국제적 제도 내지는 다자적 외교관계를 형성한 방안들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전개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와 협력의 관계, 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이익과 평화공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그리고 개념적 측면에서 다자주의에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다자주의와 관련한 연구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러기와 코헤인의 경우, 다자주의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한 바 있다. 다만 국가이익과 평화공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론적 형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뿐이다. 요컨대 그동안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과 나아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졌으나, 다자주의 이론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초기의 연구 성과들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크게 진척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키다 켄지(瀧田賢治),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 이와타 마사유키(岩田將幸) 등 다수의 일본 학자들은 다자주의에 대해 보다 유연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다자주의의 형식적 부문보다는 내용적 부문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자주의를 국제적 제도나 기구 측면보다는 다자적 외교, 전개과정의 특성, 협력의 궁극

적인 성격과 목표에 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다자협력의 실제적 의미와 형태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 측 학자들의 주요 연구성과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의 이론과 실재를 재구성해 보았다.

본 연구는 다자주의에 내재된 다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자주의의 유형들을 파악하고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자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다자적 외교의 의미, 다자주의와 협력의 관계, 협력의 과정과 목적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미국의 다자주의와 중국의 다변주의(多邊主義) 그리고 일본의 다국간주의(多國間主義)에서 나타난 다자적 외교의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자주의의 구체적인 전개과정과 실제적인 적용 양상을 규명해 보았다. 특히 협력의 궁극적 목적인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자주의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구는 다자주의의 유형적 개념화와 다자외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多者主義와 外交形態

일반적으로 다자주의에는 협력적 마인드와 실천적 행동이라는 질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의 실질적 의미는 다자협조주의라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의 현실에서는 다자주의적 형태들이 모두 협력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협력의 목표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다자 간 체계 속에서 특정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다자 간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다자주의적 관계에만 협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양자주의(Bilateralism)적 관계에서도 협력적

측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¹⁾ 다자주의에 대해 코헤인은 3개국 이상의 국가가 제도의 형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정책을 조정하는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했다.²⁾ 하지만 러기는 코헤인의 정의가 다자주의의 질적 요소를 무시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의 필요조건만을 언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관련가치의 불가분성, 포괄적 호혜성, 일반화된 행위의 원칙이 전제되어야만 다자주의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 즉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에서는 국가 간 이익의 비분할성이 강해지고 공통의 이익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공동행동을 통하여 국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수평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이익과 손실의 전체적인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예측이 가능한 국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자주의는 정치체제, 이념, 국가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3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여 서로 간의 국가정책을 상호 조정하고 원칙과 규범의 형성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추구하려는 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러기는 정의하였다.⁵⁾ 그는 다자적 행위가 기본적으로 협력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다자적 협력을 당연시하고 있다. 또한 다자주의에서 협력이라는 요소를 강조하면서 일방주의를 다자주의의 대립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외교적 행위에

1) 滝田賢治(2003) 「多国間主義の再定義とアメリカ外交」 『国際政治』 第133号、日本国際政治学会、p.12.

2) Robert O. Keohane(1990),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45, No.4, pp.731-732.

3) 小出稔(1996) 「多国間主義(multilateralism)の高まりとアジア太平洋地域」 『創大平和研究』 第18号、創価大学平和問題研究所、pp.49-50.

4) John G. Ruggie(1996). "Winning the Peace: America and the World Order in the New E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0-21; James A. Caporaso(199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3, p.607.

5) John G. Ruggie(1992),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3, p.574.

참여하는 국가들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다자주의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수적 차원의 의미인 다자주의를 질적 차원에 해당하는 협력이라는 측면과 무리하게 연계시킨 것이 다자주의의 개념적 혼란을 일으킨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국제정치이론에서 제시하지 못한 실제적 요소들과 상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⁶⁾ 즉 국력의 차이, 가치관의 상이, 이해관계의 충돌, 강대국의 전략 등 현실적으로 외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총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자주의와 양자주의가 외교의 방법으로 적용될 경우, 외교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의미하게 된다. 외교는 2개국 이상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행위임으로 양자적 또는 다자적 외교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지 1개국 혼자서의 외교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즉 일방주의는 외교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아니라 대외정책의 행태이며 그 대립적 개념은 협조주의라고 할 수 있다.⁷⁾ 일방주의는 다자적인 체계 속에서의 집단적 행동을 거부하고, 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특정한 시도에 단독으로 도전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다자적 체계로부터의 이탈과 독선적 행태를 보이는 국가는 일반적 행위의 원칙에 자국이 종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국익을 고려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⁸⁾ 대부분의 경우 일방주의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 국력이 우월한 현재의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나 강대국들이 선택하는 외교적 자세이지만, 역사적으로 상대적 국력이 약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전개했던 사례도 있다. 건국 초기 미국의

6) 岩田將幸(2008) 「今日の多国間主義における諸問題」 『現代社会研究』 第11号、京都女子大学現代社会学部、pp.118-120.

7)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는 원래 국제무역의 구성체계, 즉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특히 양자주의는 양국 간 무역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자주의는 다국 간의 결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滝田賢治, 앞의 논문, p.15.

8) 西谷齊(2009) 「単独行動主義と多国間主義の相互作用」 『近畿大学法学』 第56卷2号、近畿大学法学会、pp.62-66.

외교정책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은 경제 분야를 제외한 유럽 강대국들과의 정치적·군사적 관계의 형성을 피하기 위해 고립주의 노선을 선택하였다. 또한 국력의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를 추구했던 사례도 있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이 취했던 외교적 태도이다. 그는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 위협을 조성하는 일방주의 노선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정부가 적용한 무역관련 법안인 슈퍼 301조는 패권국의 일방주의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규범과 객관적 근거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을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는 미국의 외교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전적으로 자국이 정의한 국익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악의 축 내지는 불량국가를 규정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였다.⁹⁾

다자주의와 일방주의는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며,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자주의는 외교의 행태가 아니라 외교의 형식이며, 다자주의에 협력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는 이론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적 형식과 개념적 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자주의는 협력적 요소뿐만 아니라 일방주의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19세기 중엽 당시 선진산업국가였던 영국이 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하여 단호하게 자유무역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정책적 행태가 다자적 일방주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연합(UN)의 활동에는 다자주의의 협력적 측면과 일방주의적 양태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엔의 활동은 다자적 협력 속에

9) 패권국이나 강대국이 일방주의적 외교를 전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있지만, 국력이 강대하지 않은 국가가 일방주의 노선을 고집하였을 때에는 대부분 경제적 봉쇄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역풍을 맞았으며, 안보적으로 국제적 긴장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滝田賢治, 앞의 논문, pp.16-17.

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유엔의 안보적 활동은 다분히 일방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유엔을 통하여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당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다자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과 공동행동이라는 유엔의 기본적인 협력정신을 무시하고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경으로 미국의 정책적 목표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비록 다자적 틀이라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¹⁰⁾

양자적 관계에서는 일방주의적 측면들이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양자주의가 표면적으로는 협력적 외교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종속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양자관계에서는 이러한 국력의 격차를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국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양자적 관계에서는 협력적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국력 측면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우위에 있는 국가에 의한 일방주의적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기는 다자주의가 협력적 정신과 태도라는 질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주장했지만, 외교적 행태로서의 협조주의는 다자주의에 한정되지 않고 양자주의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다자주의만의 고유한 특징이 아님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들이 다자주의와 다자적 협조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이론적 분석에 입각한 사실이 아니라, 다분히 그들의 전략적 의도가 투영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공통의 가치나 규범을 해당 지역에 도입하여 다국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자주의에 협력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다자주의와 일방주의를 대립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이론적 오류를

10) 위의 논문, pp.19-20.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¹⁾

3. 美·中·日의 多者主義

3.1 美國의 多者主義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외교는 확대된 국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비롯한 전후처리를 주관하고 군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워싱턴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자적 협조주의 외교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의 심화에 따라 경제적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1930년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쟁이 야기됨에 따라 미국은 다자적 일방주의 외교를 전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자적 협조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유엔과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체제는 전후 미국의 다자적 협조주의 외교의 구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 후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참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을 주도하는 등 다자주의적 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다자주의 외교가 변화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안보문제에 관한 미국의 다자주의 외교는 매우 선택적이며, 근본적으로 양자주의를 견지하고 있다.¹²⁾

본질적으로 다자체제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국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당시 소

11)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러기와 나이는 다자주의를 제도화된 국제적 협력으로 규정하고, 협력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방주의로 단정하고 있다. 또한 다자주의와 일방주의를 대립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의 논문, p.18; Ruggie(1996) 앞의 책, pp.4-5.

12) 安藤次男(2010) 『ブッシュの単独主義外交とアメリカ孤立主義』 『立命館国際研究』 22-3, 立命館大学国際関係学会, pp.249-251; 滝田賢治 앞의 논문, pp. 20-21.

련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비대칭성을 받아들였지만, 탈냉전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국의 경제주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탈냉전 후 미국은 공세적인 일방주의 경제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유엔을 통한 외교에서도 미국은 일방주의적 외교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다자적 협조주의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안보 상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보수세력들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³⁾ 하지만 클린턴(Bill Clinton)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다자주의를 주창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는 유엔이 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한 바 있다.

일방주의와 협조주의의 선택이 시대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는 해도 NATO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유럽지역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자주의적 외교를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경우 양자적 일방주의 노선이 미국 외교의 근간인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양자 간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데에는 당시 소련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요구, 지역적 이질성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속력,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불신 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이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G2의 한 축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미·일 간의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아시아지역 외교정책이 다자적 협조주의 노선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제적 규범과 제도가 형성되면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관계가 마련되고 보다 협력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자적 일방주의 내지는 양자적 일방주의 노

13) 위의 논문, p.14.

선을 선호하여 온 것은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라는 미국적 정서와 국제적인 규범과 제도가 국가의 주권을 제약한다는 현실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것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국의 국력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게 되자 미국은 다자적이든 양자적이든 일방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도전하는 국가가 없는 세력불균형 상태 속에서 다자적 외교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였다. 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국제환경 속에서 미국이 양자적 일방주의나 다자적 일방주의 노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 단독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외교는 전환점에 직면해 있으며 다자적 협조주의 외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¹⁴⁾

3.2 中國의 多邊主義

전통적으로 중국의 외교는 대국들 사이의 권력정치를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유엔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다국 간 외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⁵⁾ 하지만 1993년 미국 시애틀(Seattle)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정상회의에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14) 西田芳弘(2005) 「米欧關係にみる同盟の今日の課題」 『レフッレンス』 8月号、国立国会図書館、pp.14-15.

15) 중국 공산당의 교육자료와 각 대학의 교재에서 유엔 이외의 다자적 외교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高原明生(2003) 「東アジアの多国間主義」 『國際政治』 第133号、日本國際政治学会、p.60.

참석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외교는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APEC 정상회의는 중국의 국가적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실제로 중국은 APEC 정상회의라는 다자적 외교무대를 적절히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강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APEC 정상회의는 이를 만회하고 국제무대에 중국이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다는 것이다.¹⁶⁾ 중국은 1994년 창설된 아세안지역포럼(ARF)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지만, 1990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1991년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적 외교를 준비하고 있었다.¹⁷⁾ 하지만 1997년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다자주의적 외교에 대한 당시 중국의 입장이 확고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998년 장쩌민 주석의 일본 방문을 통하여 중국은 지역적 다자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는데, 당시 발표된 중일공동선언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 다자적 무역체제, 동아시아 경제문제 등에 있어서 중일협력뿐만 아니라 지역적 협력도 강조하였던 것이다. 당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인해 그리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다자적 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외교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이 세계화를 수용하고 다자주의적 외교관계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당시 중국 지도부가 경제적 개방에 따른 국가자본의 잠식과 농촌의 황폐화, 다자적 외교로 인한 내정간섭의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였다는

16) 中嶋慎治(2010) 「台頭する中国との関係は如何にあるべきか」 『立命館経済学』 第58巻 5・6号、立命館大学経済学会、p.160.

17) 松本はる香(2006) 「中国のASEAN外交と多国間主義の実像」 『中国21』 第24号、愛知大学現代中国学会、pp.251-253.

사실을 고려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국가와 정부의 명운을 건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세계적 차원의 다자외교를 수용한 중국은 그러한 선택이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다자외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다.¹⁸⁾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의 지역적 역할을 인정하고, 역내의 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역과 자본투자 측면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시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지역적 다자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와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중국이 무시할 수는 없으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하며, 동아시아 지역다자주의가 개방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⁹⁾

동아시아지역에서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안보분야에서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다자적 외교를 통하여 해결하자는 방안에 대해 중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1996년 중국은 분쟁상대국인 필리핀과 함께 신뢰구축을 위한 지원그룹의 공동의장국을 맡았으며, 1997년 ARF가 역내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적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외교 구상은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한 불만과 대만이 참여하고 있는 APEC에 대한 불편한 심기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유일초강대국화하게 되고 유럽에서는 NATO의 동

18) 高原明生, 앞의 논문, p.62.

19) 梶島洋美(2011) 「アジア多国間地域主義と日中二国間緊張の相関を考える」 『横浜国際経済法学』第20巻1号、横浜国際経済法学会、pp.39-45.

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그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봉쇄를 피하고 활동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동아시아 지역다자주의를 추진해야만 하는 절실한 동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역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다자주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다자적 외교가 활성화하게 된 데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중국이 다자적 외교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막대한 금액의 불량채권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던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발생에 대해 매우 우려하였으며,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였다. 1997년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창설 30주년 기념대회에서 당시 중국의 첸지첸(錢基琛) 부총리는 경제안보가 발전의 핵심적인 요건이며, 안정된 국가경제와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세계의 협력을 강화하여 예측가능한 국제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국이 다자적 외교관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부정적인 사태임이 분명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기능을 하였다. 역내국가들의 운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하는 작용을 하였다. 즉 중국은 단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필요로 할 뿐이며, 일단 중국이 성장하면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다자주의의 진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²⁰⁾

20) 高原明生, 앞의 논문, pp.62-64.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다자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데에는 중국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커다란 강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국화를 경계하는 이 지역 국가들의 의식은 중국으로서는 약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에도 불구하고 안보적으로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¹⁾ 동아시아 국가들이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과의 양자적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역내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기보다는 다자적인 외교를 통하여 중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초강대국화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국은 다자적 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당위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다자적 외교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국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지금, 다자적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중국은 자국의 국력신장이 주변 여러 나라의 근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²²⁾ 중국은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지역다자주의 추진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하여 중국의 성장에 주변 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적인 지역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교정책의 중심을 동아시아지역에 두고 이 지역 국가들과의 다자외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영유권분쟁을 비롯한 안보문제들의 다자주의적 해결방식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외교의 변화는 국력의 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초강대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지역 국가들의 신뢰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역내국가들의 불신과 견제는 중국의

21) 梶島洋美, 앞의 논문, p.35.

22) 高原明生, 앞의 논문, p.64.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은 중국 지도부가 국제관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중국이 동아시아지역 다자외교에 참여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은 미흡한 국력과 모호한 국제적 지위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²³⁾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자국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2국 간 외교가 유리하다고 보았으며,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체제에서는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미중관계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지역적 연대의 필요성과 다자주의의 유용성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다자주의적 외교의 기초를 쉽게 변경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다자주의 외교를 본격화하게 된다면 21세기 국제환경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3.3 日本의 多國間主義

일본은 1950년대부터 유엔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를 매개로 지역적 다자주의를 구상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동남아시아개발각료회의를 주최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지역다자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은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하자, 태평양지역의 선진공업5개국 즉 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간의 태평양자유무역지대를 제안하였다. 사토(佐藤 榮作) 내각은 상기 5개국과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다자적 협력을 목표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냉전 시기에 일본의 지역적 협력을 위한 움직임은 당시 소련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

23) 위의 논문, p.60.

러한 일정한 한계 속에서 당시 일본은 양자적 관계를 통하여 안행형(雁行型) 지역경제체제를 형성해 나갔다. 하지만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이 미국의 세계전략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한적이긴 해도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본은 역내국가들과의 다자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베트남전쟁이 끝난 후부터 동남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다자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당시 일본의 후쿠다(福田 趙夫) 총리는 일본이 ASEAN의 단결을 촉진함과 동시에 ASEAN과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화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80년 일본경제조사위원회는 일본과 ASEAN의 지역적 다자협력이 글로벌리즘(Globalism)과 모순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세계무역의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일본의 지역적 다자주의는 무역마찰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미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 나카소네(中曾根康弘) 내각은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협력 구상을 표명하였다. 전후 일본은 미국과의 사실상 수직적 관계 속에서 과도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원치 않는 미국의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까지 일본이 다자적인 지역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²⁴⁾

일본은 중국의 안정과 발전이 동아시아지역의 성장과 지역적 다자협력의 핵심적인 사안이며, 세계적·지역적 다자체제에 중국을 참여케 하여 양자대립적인 중일관계를 다자체제를 통하여 상대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고 국

24) 1992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수상이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구상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배경에도 미일관계 속에서 타율적일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속사정이 있었으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 일본이 제안한 동아시아통화기금 구상도, ASEAN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위의 논문, pp.65-66.

제체제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국과 지역의 안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79년 일본은 대규모 정부개발원조(ODA)를 중국에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텐안먼사태 이후 선진국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대중경제체제를 해제하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하였다. 1991년 중국을 방문한 가이후(海部俊樹) 총리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후 중국경제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의 일체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협력은 중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과 번영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7년 중국방문에서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총리도 동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하면서 지역적 다자협력을 제안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양국이 협력하여 지역다자체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창하였다.²⁵⁾ 탈냉전 후 일본은 안보분야에서 ASEAN, 호주 등과 함께 지역대화포럼을 추진했으며, 1994년 ARF를 설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은 아세안의 방식, 이른바 걸리버 어프로치(Gulliver Approach)를 지원하면서 지역적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이와 같이 동아시아지역 다자주의 대해 일본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양자적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적 다자체제를 통한 협력이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정치적 측면에서 일본은 베트남전쟁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손상된 미국의 위상을 자국이 어느 정도 대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냉전 시기 일본은 역내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였

25) 위의 논문, pp.66-67.

26) 걸리버 어프로치(Gulliver Approach)는 소국들이 주도해서 대화와 협력을 위한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강대국들이 참여하여 안정과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Tatsumi Okabe(1996), "Learning to survive with 'Gulliver'", *The World Today*, Vol.52, No.6, pp.155-156; 松井一彦(2007) 「東アジア安全保障と多国間協力」『立法と調査』第273号、参議院調査室、pp.29-34.

으며, 이들 국가들이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면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적 다자안보체제의 형성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지역다자주의에서 일본은 중국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일본이 지역다자주의에 소극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2002년 지역다자체제를 통한 협력과 통합이 동아시아지역의 전략적인 과제라고 고이즈미(小泉 純一郎) 총리가 주창한 바대로 21세기 일본외교에서 다자주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입아(入亞)와 탈아(脫亞)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지역다자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변화된 국제환경과 국가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다자주의는 일본의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친미탈아(親美脫亞) 노선만을 고집한다면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국가의 명운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 多者主義의 類型的 概念化

다자주의를 외교의 형태라고 본다면 상대적 개념은 양자주의이며, 협조주의와 일방주의는 외교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외교의 형태와 자세를 조합해 보면 다자적 협조주의와 다자적 일방주의 그리고 양자적 협조주의와 양자적 일방주의라는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이들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실제 국제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다자적 협조주의는 평화정책, 경제협력, 일 반적인 유엔의 활동 등으로 나타나는데, 서유럽동맹(WEU)과 다양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그리고 WTO에서 다자적 협조주의 외교를 찾아볼 수 있다. 다자적 일방주의는 전통적으로 패권국에 의한 자유무역정책과 봉쇄정책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을 중

27) 高原明生, 앞의 논문, pp.65-68.

심으로 집단적 방어동맹(Collective Defense Alliance)의 기능을 하는 NATO가 다자적 일방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후 미국의 주도 하에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은 다자적 협조주의와 다자적 일방주의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자적 협조주의와 다자적 일방주의 사이에는 협력의 형태와 수준 그리고 일국의 독단적 행위의 정도 등의 척도에 따라 다양한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양자적 일방주의는 강대국의 간섭과 개입주의정책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불균형적인 동맹관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전후 미국과 각 국가 사이의 군사동맹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양자적 협조주의를 형성하기도 하고 양자적 일방주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²⁸⁾ 두 국가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쌍무적인 동맹관계를 양자적 협조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양자적 협조주의는 유동적인 호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3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자적 협조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²⁹⁾

다자주의의 실제적 양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나우(H. Nau)는 경쟁적(competitive), 미텔만(J. H. Mittelman)은 약식(truncated), 가드너(L. Gardener)는 상황형(case by case), 바그와티(J. Bhagwati)는 과정(process)·결과(outcome) 다자주의로 분류하였다.³⁰⁾ 국제적 상설기구의 설립 여부를 기준으로 마틴(Lisa L. Martin)은 다자적 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s)와 다자주의적 제도(Institution of Multilateralism)로 구분하였는데, 다

28) 滝田賢治, 앞의 논문, pp.16-18.

29) Ruggie, 앞의 책, pp.20-21.

30) 탈냉전 이후 미국의 다자외교에 대해 클레멘트(S. Clement)는 지역과 사안에 따라 차별적인 특수(specific)·선택적(selective) 다자주의로 규정하였으며, 크라우트해머(C. Krauthammer)는 패권체제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pseudo) 다자주의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나우(H. Nau)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적(concentric) 다자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滝田賢治, 앞의 논문, p.13.

자적 협조주의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구조화된 조직과 세분화된 기능적 부문을 가진 다자적 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과 아세안지역포럼(ARF)은 다자적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다자주의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³¹⁾ 하지만 APEC은 어떤 현안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APEC은 원론적인 선언이나 원칙적 합의밖에는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하며,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러한 APEC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ARF는 ASEAN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단순한 대화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ASEAN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지속된다는 것은 관련 강대국들이 ARF를 지역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며 실제로 강대국들의 참여가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³²⁾ 아울러 다자주의에 입각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6자회담(Six-Party Talks)의 경우, 회의를 시작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참여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고, 일반화된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상호불신과 자국중심적 사고로 인해 포괄적 호혜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³³⁾

다수의 일본 학자들은 다자주의의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실효적 다자주의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³⁴⁾ 외교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다자주의는 현실적으로 각국의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들 간 타협의 결과가 반영될 수

31) Lisa L. Martin(1992), "Interests, Power, and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4, p.766.

32) 김경일(2002)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모색과 그 가능성」 『大韓政治学会報』제10집 2호, 대한정치학회, pp.7-8.

33) 김경일(2003) 「6자회담과 다자주의」 『국제정치연구』제6권 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pp.39-44.

34) 東京財団編(2010) 『アジア太平洋の地域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 pp.140-141.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주의는 참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방적 다자주의와 배타적 다자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 외교는 타협과 설득 그리고 강제를 통하여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는 이러한 외교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수를 바탕으로 정의한 외교의 형태이다. 또한 협력은 타협과 설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국제정치 of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국가 외의 참여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화와 함께 외교무대에 다양한 비정부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은 외교의 전개과정이며 이익의 교환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다자적 외교에서도 협력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자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협력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갈등과 대결이 해소된 안정된 상태,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라고 할 수 있다. 협력의 측면에서 볼 때, 다자주의는 호혜적·경쟁적 다자주의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혜적 다자주의는 포괄적 다자주의와 전략적 다자주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화의 측면에서 볼 때, 다자주의는 적극적 다자주의와 소극적 다자주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다자적 협조주의는 그 구성요소의 실제적 양상에 따라 동질적·이질적 다자주의, 규범적·유동적 다자주의, 균형적·불균형적 다자주의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5. 結 論

이상과 같이 평화와 협력의 관점에서 다자주의를 분석해 보았다. 상기의 고찰을 통하여 다자주의는 일방주의와 대립적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협조주의와 일방주의의 양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 규명해 보았다. 또한 양자주의 역시 양자적 협조주의와 양자적 일방주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협력의 정도와 비협력

의 기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자주의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제관계의 제도들 중 하나인 다자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은 평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자주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자주의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협력과 비협력, 협력의 형태와 수준의 측면에서 다자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러 단계의 중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자주의가 이론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규명되고 있으며, 국제관계의 현실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다자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다자주의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다자주의에 대한 경직된 사고와 적용의 유연성 결여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6자회담에 대한 인식과 대응자세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다자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학문적 측면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의 다자주의 외교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경일(2003) '6자회담과 다자주의', 『국제정치연구』제6권2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pp.39-44.
- _____(2002)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모색과 그 가능성', 『大韓政治学会報』제10집2호, 대한정치학회, pp.7-8.
- 安藤次男(2010) 「ブッシュの単独主義外交とアメリカ孤立主義」, 『立命館国際研究』22-3, 立命館大学国際関係学会, pp.249-251.
- 岩田将幸(2008) 「今日の多国間主義における諸問題」, 『現代社会研究』第11号, 京都女子大学現代社会学部, pp.118-120.

- 梶島洋美(2011)「アジア多国間地域主義と日中二国間緊張の相関を考える」『横浜国際経済法学』第20巻1号、横浜国際経済法学会、pp.35-45.
- 小出稔(1996)「多国間主義(multilateralism)の高まりとアジア太平洋地域」『創大平和研究』第18号、創価大学平和問題研究所、pp.49-50.
- 高原明生(2003)「東アジアの多国間主義」『国際政治』第133号、日本国際政治学会、pp.60-68.
- 滝田賢治(2003)「多国間主義の再定義とアメリカ外交」『国際政治』第133号、日本国際政治学会、pp.12-21.
- 東京財団新しいアジアの安全保障構造プロジェクト編(2010)『アジア太平洋の地域安全保障アーキテクチャ:地域安全保障の重層的構造』、公益財団法人東京財団、pp.140-141.
- 中嶋慎治(2010)「台頭する中国との関係は如何にあるべきか」『立命館経済学』第58巻5・6号、立命館大学経済学会、p.160.
- 西谷齊(2009)「単独行動主義と多国間主義の相互作用」『近畿大学法学』第56巻2号、近畿大学法学会、pp.62-66.
- 西田芳弘(2005)「米欧関係にみる同盟の今日の課題」『レフッレンス』8月号、国立国会図書館、pp.14-15.
- 松本はる香(2006)「中国のASEAN外交と多国間主義の実像」『中国21』第24号、愛知大学現代中国学会、pp.251-253.
- 松井一彦(2007)「東アジア安全保障と多国間協力」『立法と調査』第273号、参議院調査室、pp.29-34.
- James A. Caporaso(199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3, p.607.
- John G. Ruggie(1996). "Winning the Peace: America and the World Order in the New E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4-5, pp.20-21.
- _____ (1992),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3, p.574.
- Lisa L. Martin(1992), "Interests, Power, and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4, p.766.
- Robert O. Keohane(1990),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45, No.4, pp.731-732.
- Tatsumi Okabe(1996), "Learning to survive with 'Gulliver'", *The World Today*, Vol.52, No.6, pp.155-156.

284 日本語文學 第 65 輯

성 명(한 글) : 김 경 일

(한 자) : 金 慶 一

(영 문) : Kim, Kyeong-Il

논문영문제목 : A Study for Theoretical Variety of Multilateralism
from the Viewpoint of Peace and Cooperation:
Centering on the Typcal Conceptualization through
Case Analysis

소 속 :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E-mail : kimkiphd@hanmail.net

투 고 일 : 2014년 3월 27일

심사개시일 : 201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9일